“기본과 원칙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주)금화PSC

설립일 : 1981. 5
대표자 : 김경태
사업 분야 : 플랜트 건설/경상정비/계획예방정비/개보수공사 외
비전 :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로 신뢰받는 금화PSC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1981년 플랜트 건설로 시작해 발전 설비 정비,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에너지 토털 기업을 꿈꾸는 회사, 금화PSC다.

기본부터 튼튼히 키우는 기업

“발전 설비 정비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본을 무시하거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정비 업무 수행과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없는 사업장을 위해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금화PSC 김경태 사장은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1981년 설립되어 36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금화PSC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금화PSC의 기업 이념이 신념, 신의, 신용인 것 역시 대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회사는 존속할 수 있다는 김 사장의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플랜트 건설로 시작해 발전 설비 정비까지

금화PSC가 처음부터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플랜트 건설로 시작한 금화PSC는 1995년부터 정비 사업 부문에 진출,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와 계획예방정비 공사는 물론 발전소 핵심 부품의 교체를 통해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성능 개선 공사까지 수행하고 있다.

화력뿐만 아니라 고리, 월성, 한울 및 새울 등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의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금화PSC 원자력사업팀 최정길 팀장은 “화력발전 설비의 정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전 정비 시장에 진출했다.”며 “새울사업장에서 현재 수행중인 경상정비와 계획예방 정비 업무를 통해 원전 정비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앞으로 종합 정비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 건설로 시작한 금화PSC는 1995년부터 정비 사업 부문에 진출,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와 계획예방정비 공사는 물론 발전소 핵심 부품의 교체를 통해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성능 개선 공사까지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금화PSC의 발빠른 행보도 주목된다. 자연의 청정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화PSC는 태백 창죽, 제주 한경풍력 및 성산풍력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력발전소 건설에도 참여,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수한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서

지식 경영의 시대, 기업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우수한 인재가 가치있는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금화PSC는 발전 설비 정비 분야별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2000년 충남 당진에 발전정비교육원을 개원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계통, 기계, 전기 기초 및 심화 과정과 품질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2년 정비실습동을 신축,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정비교육원은 2013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도 했다.

김경태 사장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설비와 같은 유형 자산에서 인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지식을 창조하고 모으고 공유하는 주체인 인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질적 성장의 원년이 되다.

금화PSC는 2018년을 '질적 성장의 해'로 선포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회사가 백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김 사장의 판단 때문이다.

"기업의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전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정해진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질적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화PSC는 업무 수행 방식과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에 따라 조직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간 산업인 발전 설비에 대한 책임 정비와 안전 운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금화PSC는 1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굴지의 기업이다. 결코 작지 않은 회사 규모와 인력, 기본과 원칙을 경영 이념으로 건설에서부터 발전 설비 정비,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아우르며 에너지 토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